



5 소셜 텍소노미 소개 및 사회적경제 향후 과제

☑ 유럽연합(EU)이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마련된 그린 텍소노미에 이어 **소셜 텍소노미 최종안 발표**

- EU집행위원회 자문그룹인 지속가능금융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¹⁾ 주도 아래 완성

☑ 소셜 텍소노미는 자체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관련 분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촉진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요구받고 있는 ESG와 관련, 소셜위싱을 판별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 소비를 포함,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국내외 인권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중심의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기업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살펴보고, 사회적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1) PSF: EU분류체계 개발 등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EU 전문가 그룹으로 2019년 10월 발족된 조직체임

CONTENTS

1

추진개요

3

2

ESG 개념적 이해

4

1 ESG 개념 및 중요성

4

2 국내외 ESG 최신 동향

6

3 S in ESG: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가치

8

3

소셜 택소노미 주요 내용 검토

10

1 소셜 택소노미 최종안 구성

10

2 소셜 택소노미 개념 및 기능

11

3 소셜 택소노미 구조

12

4 소셜 택소노미의 사회적 목표

12

5 그린 택소노미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14

6 소셜 택소노미의 사회적 목표 활용 가능성

15

7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우려

15

4

사회적경제 향후 과제

16

1 소셜 택소노미의 의의

16

2 사회적경제 영역의 과제

17

1 추진개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기구 EU에서 발표한 소셜 택소노미 주요내용
파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목표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추진배경) 기업 경영 시 재무수익 활동 외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통합적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속에, EU에서 환경
택소노미에 이어 소셜 택소노미²⁾를 발표함 (2022. 2. 28)

-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제시한 분류 체계로,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활동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시키는 판단 기준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음
* EU그린 택소노미 발표 후 (2020.6) 기후 위임법을 통과(2022.7) 및 발효(2023.1~) 예정
- 국제사회를 포함,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ESG요소를 경영전략에 포함함
- 무엇보다 기업이 ESG중심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윤리적 경영에 대한 기대 증가
- 이에 정부도 민간 ESG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³⁾ 추진 중
- 경제적 ·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해 온 사회적경제 기업도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며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고민과 준비가 필요

☑ (추진목적) 소셜 택소노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개념과 기준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택소노미(Taxonomy)는 그리스어 Taxis(배열) + Nomos(법칙)의 합성어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분류체계를 의미함. 본 리포트에서는 번역된 표현이 아닌 원문 그대로 표기

3) ESG 인프라 확충방안 발표(2021.8), K-ESG가이드라인 발표(2021.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2021.12) 등

2

ESG 개념적 이해

ESG는 2006년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이 발표되면서 주목받게 되었고, 이후 투자·평가·경영·공시 등 이해관계자 논의가 더해지면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1. ESG개념 및 중요성

☑ 기본개념

- ESG는 기업의 지속경영과 투자결정 과정에서 재무수익 이외 3가지 핵심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경영기준을 의미함

* ESG를 환경, 책임, 투명구조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해석하고 있음

ESG 개념 구성요소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공해, 삼림파괴
사회(Social)	인권, 현대노예, 아동근로, 근로조건, 근로관계
지배구조(Governance)	뇌물 및 부패, 경영진보상, 이사회구조, 정치적 로비, 조세

출처: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ESG 논의배경

- ① 지속가능이슈 대두) 지구 온난화 등 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 ② ESG투자 관심) 2006년 UN의 6대 사회책임투자원칙⁴⁾ 발표 이후, 성장과 수익창출 중심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활동으로 관심 이동

4) 6대 사회책임 투자원칙: ① 투자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ESG 이슈반영 ② ESG 이슈반영한 적극적 투자추진 ③ 투자대상의 ESG 정보공개 요청 ④ 사회책임투자 적극 이행 ⑤ 사회책임투자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⑥ 사회책임투자 진행사항 공유노력

- (③ 환경이슈 초점화) 2020년 1월, 세계 최대규모 자산운행사인 블랙록 회장의 기후관련 투자 계획이 담긴 연례 서한이 공개되면서 환경관련 리스크 관리 중요성 대두
 - * 최근 블랙록은 ESG 투자에 대한 연차총회에서 지나친 규범화절차에 대한 비판과 함께 ESG중심의 투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투자운용사들의 찬성 지지율 역시 하락한 상황
- (④ 글로벌 규범화) 불확실성 확대 속에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넘어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의제화 및 국제단체 주도의 ESG 경영 촉진이 추진되었고,
 - Kotra(2022)도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2006), 지속가능발전목표(2015), 파리협정(2015), TCFD 권고안 발표(2017)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ESG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 (⑤ ESG 경영 본격화) ESG 투자에 많은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민·관 기관 내 전담부서 마련, ESG 위원회 신설, 전략수립 등 ESG 경영 체제 적극 도입 중
 - * 관련하여 정부, 투자사, 학계, 소비자 중심으로 친환경적이며(E) 사회적 책임 아래(S) 투명한 경영활동(G)을 위한 좌담,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논의의 장 개최 중

☑ ESG의 중요성

- (① 투자자원 확보 관점) 많은 투자자들이 ESG요소를 핵심가치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
 -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인 UBS는 고객들에게 기존의 투자방식을 벗어나 1순위로 ESG투자권유를 선언했고 국내 대표 연기금 투자기관인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함
- (② 기업목적 관점) 기업 차원에서 수립·실행하는 여러 전략들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에 있음에, ESG는 기업 스스로 내재화해야 하는 요소라는 합의 도달
- (③ 이해관계자 관점) 가치소비 확산* 등 소비자 및 지역사회 입장에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외부 평판 등 리스크 감소를 위한 주요 기준으로 적용 가능
 - *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는 결국 국민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기본적 생존원칙을 일깨워 준 사례임

2. 국내외 ESG 최신 동향

☑ 해외동향

- ESG활동의 퍼스트 무버로 소개되는 EU 중심으로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적 이행을 위한 법제화 활동 추진 중

* 탄소국경세가 달한 국가로 탄소유출이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역관세 제도로 23년 시범도입 및 2026년부터 본격시행 예정

- (1 ESG정책)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화* 추진

* EU는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권,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22. 2.)했고 24년부터 시행 예정, 이와 함께 2022년 5월에 개최된 국제노동기구 110차 총회에서 기존의 4가지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마련”을 추가함으로써 EU움직임에 힘을 더해줌

- (2 ESG경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을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으로 수정,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에게 ESG정보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

* 공시대상은 500명 이상 대기업(11,700개사)에서 모든 대기업(49,000개사)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개정보의 외부검증 및 디지털화에 맞춰 공개하도록 지침 강화(2024년 시행 예정). 이는 2023년도에 해당하는 지속가능정보 공시의무와 함께 EU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정보 요청 시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는 것임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을 마련, 제공예정(‘22.10)

- (3 ESG평가) 수많은 지표들이 존재하고 측정방법 및 결과의 상이성*으로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보다는 평가사의 기본적 고려사항 제안 등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집중되는 상황

* 각기 다른 지표를 활용하거나 가중치 부여방식의 차이로 야기

** OECD는 ESG 지표들 간 연관성 및 호환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draft팀 구성을 통해 ESG투자원칙 제정 추진 중(2022.2)으로 OECD사무국 외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대표 참석 중

- (4 ESG투자) 지속가능투자 개념이 ESG투자 개념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투자규모 지속 증가 상황**

* ESG투자와 관련, 사회책임투자, 윤리적 투자, 임팩트 투자 개념과 혼재되는 등 아직 국내에서의 개념은 미정립 상태임

** 글로벌 ESG투자액은 2020년 기준 35조 달러(4경1453조 원)로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증가한 상황. 블룸버그는 ESG 전체 자산이 2025년까지 총 자산의 1/3을 차지하는 5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소셜텍소노미 보고서 p20)

- (5 ESG공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 표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투자기관으로 하여금 ESG 경영정보 외부공개 촉진*

* 금융기관 대상의 지속가능금융공시(SFDR)시행으로 (2021.3) EU역내 금융기관은 ESG리스크로 인한 손실액, 투자규모, ESG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 발표

☑ (국내동향) 국정과제 내 ESG 관련사항 반영 및 ESG투자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추진

- (① ESG정책) 새 정부는 국정과제 내 ESG 관련 사항 반영을 통한 적극 추진 움직임 시사

ESG 관련 국정과제 내용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ESG역량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지원 등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력 추진

-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확산,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 신설 검토
-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사업,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20.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녹색산업·기술육성) 20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종합 컨설팅,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 (② ESG경영) ESG경영 선포 및 전담 조직 신설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도 ESG 경영에 예의주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 ESG촉진방안 마련(2021.11.23): ① 중소기업 맞춤형 체크리스트 마련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한 ESG인식제고, ② 부문별 맞춤형 지원 및 민간으로의 확산 등 ESG생태계 조성 ③ ESG확산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음

**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요소(① 안전 및 환경항목, ② 사회공헌활동, ③ 상생협력, ④ 일가정양립)를 포함, 평가반영계획 발표

- (③ ESG평가) ESG평가 신뢰성과 일관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체계 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검토 추진(이인형, 2021) 및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가진단 플랫폼* 등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신경제연구소, 한국평가데이터, IBK기업은행 등

- (④ ESG투자) 2020년 1월 국민연금에 지속가능성을 기금운용 원칙에 추가하는 등 ESG투자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과 함께 투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SG펀드 규모는 4,497억 원이며 주로 연기금(국민, 사학, 공무원, 우정사업본부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더불어 ESG채권발행은 2018년 1.3조 원에서 2020년 63.7조 원으로 크게 증가

- (⑤ ESG공시)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ESG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장기업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추진*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자산 1조 원 이상(2022년) → 자산 5천억 원 이상(2024년) →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2026년)

** 환경, 노사관계 등 사회이슈내용을 포함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현재는 자율공시중이나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 예정

3. S in ESG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가치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공동체 위기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변화) 장기간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건강 불평등, 소득 양극화, 실업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 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의제를 참조해야 한다는 인식 제기(김미곤 외, 2018)
- ☑ (ESG와 지속가능발전) ESG는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 세계에 적극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이상현, 2022)
 - 노동자, 소비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은 사회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
 - * 고객대응, 제품품질, 노사관계, 협력사와의 협력 등
 - 나아가 소비 및 투자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제품을 이용하거나 사회 영향력 기반의 임팩트 투자가 확대되는 등 ESG 중에서도 사회적(Social)부분으로의 관심 이동 중
- ☑ (EU의 ESG확산을 위한 노력) 특히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과 ESG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국제단체로,
 - EU역내의 입법 권한을 지니고 있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담론적 맥락과 함께 일련의 활동 추진 중
 - * EU는 '15년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10대 정책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발표했고, 이 중 환경/사회분류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보공시에 대한 이행과제 포함

ESG 확산을 위한 정책활동 추진경과

2014.04	비재무정보 공시 제정
2018.03	지속가능금융 마련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발표
2019.12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그린딜 제시
2020.03	유럽기후법 ⁵⁾ 제안
2020.07	그린 택소노미 발표
2021.03	지속가능금융 공시(SFDR) 발효
2021.04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CSRD) 제안
2021.04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마련
2022.02	소셜 택소노미 발표

☑ (S in ESG 제고성 강조) 지속가능한 개발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준의 명확성 및 이에 대한 정보 공개 중요성을 강조하며,

- 사회적 목표 및 세부 기준(방향성)을 제시하고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 관련된 여러 규범의 정합성을 고려하며 지속 추진 의사 표명

5)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실현을 위해 단계별 목표, 방법 등의 규정 포함

3

소셜 택소노미 주요내용 검토

소셜 택소노미는 어떠한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사회적 목표 및 관련 기준을 제시한 권고안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소셜 택소노미 최종안 구성

☑ EU의 최종안 발표 배경

- (① 공정한 전환을 위한 투자자본 유인) 2030년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 및 공정한 전환⁶⁾으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조달
 - *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 3천억 ~ 4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고 월드뱅크가 공개한 빈곤 및 공동번영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8,800만 ~ 1억 1,500만 명이 극도의 빈곤상태에 놓여있다고 언급
- (② 투자기관의 요구) ESG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로부터 사회적 채권에 대해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개발 요청 증가
 - * EU의 투자자본은 2009년 1,300억 달러에서 2021년 5,800억 달러로 증가했고, 블룸버그사는 사회적 채권으로 발생한 수익이 2019년 200억 달러에서 2020년 1,477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발표(소셜택소노미 최종권고안 본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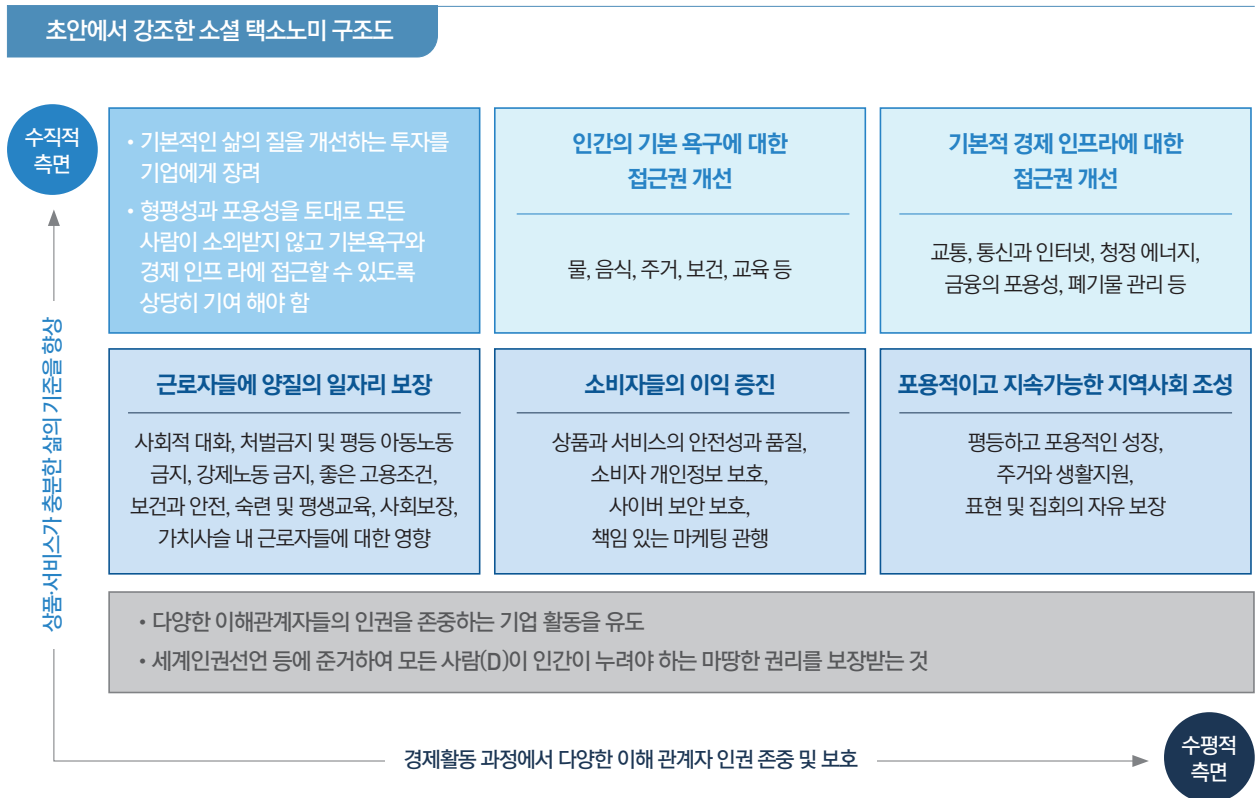
☑ (포함내용) “사회적” 합의화에 대한 한계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환경 분류체계에 이어 사회 분류체계로까지 확장하게 된 배경과 주요 기준 및 예시 소개(보고서 원문 번역본 공개 예정)

☑ (초안과 변화된 점*) 초안에는 “사회적” 목표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해 두 가지 축⁷⁾으로 제시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단일 축*(수평)으로 정리

* 최종안 발표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회적 분류 구체성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6) 탄소중립,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산업영역 및 노동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공정과 정의가 주요 문제로 대두.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음

7) 자본의 흐름을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활동(수평)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소외받은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수직)할 것을 강조



2. 소셜 텍소노미 개념 및 기능

☑ (개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분류체계를 의미함

☑ (기능)

- (① 자본유입 촉진)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활동으로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 (② ESG강화) 정부의 재정지원 및 기업의 투자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분류체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
- (③ 사회적 이슈 대응)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바람직하게 대응하도록 지원 → 소셜워싱 차단

3. 소셜 텍소노미 구조

- (① 사회적 목표 개발)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분류의 목표 설정
- (② 실질적 기여 유형) 앞서 설정한 사회적 목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 (③ 다른 기준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 근무를 부여하는 등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기준마련이 필요함
- (④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사회적”목표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인권, 뇌물수수, 탈세 등과 같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공정한 방식을 동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에 관한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체계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4. 소셜 텍소노미의 사회적 목표

- ☑ (국제규범 기반) 사회적 목표를 위한 범위 설정 시 누구나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소셜 텍소노미는 국제 규범*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

* 그런 텍소노미는 과학적 기준에 기반할 수 있는 반면 소셜 텍소노미는 기준설정의 모호함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소셜 텍소노미에서 제시하는 국제규범

- 1 세계 인권선언
-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한 ILO선언
- 5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6 유럽인권협약
- 7 유럽 사회헌장
- 8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 9 사회적 권리의 유럽필러
- 10 SDGs
- 11 UNG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출처: 소셜텍소노미 최종 권고안(2022)

- ☑ (기준 범위) 노동권, 사회적 보호, 차별금지, 의료, 주택, 교육권, 실업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고려 및 관련 경제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 유형 고려

☑ (사회적 목표) 소셜 텍소노미에서 ① 양질의 일자리 ② 소비자 이익증진 ③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지원의 기준 제시 및 목표활동 제시

- (①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에 있어 산업변화로 기존 오염시설이 폐쇄되어 실업 상태가 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 중요
- (② 소비자 이익증진) 소비자의 적절한 생활 수준 및 복지 제공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삶의 기준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
- (③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기회 창출 지원을 의미

소셜 텍소노미의 사회적 목표 구분

사회적 기준	상위목표	하위목표
양질의 일자리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 사회적 보호 • 사회적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지급 • 공급망 실사 추진 • 단체교섭 존중 •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 • 기술훈련 프로그램 마련 •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근절 • 직장 내 평등과 차별 금지 • 임원-직원 간 과도한 임금격차 지양
소비자 이익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건강 • 식품 안전성 • 주택 및 교육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 보장 • 내구성 및 수리가능한 제품 설계 • 사이버보안 • 개인정보 보호제공 • 양질의 의료서비스 • 식수와 주택 • 교육 및 평생학습 접근 보장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과 통신 • 금융서비스 • 전기시설 등 기본경제 인프라 • 장애인 포함 • 공정한 일자리 전환 • 성별격차 해소

☑ (설정기준) 사회적 목표는 환경적 목표와 달리 복합적 특성을 내재화하고 있어, 실제 기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함

☑ (사회적 목표 기여 판단 기준) 사회적 목표는 환경적 목표와 달리 복합적 특성을 내재화하고 있어, 실제 기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함

- (① 재할, 용역, 인프라 등의 긍정적 영향 증대) 신약개발과 같이 사회적 기여가 내재된 기업활동
- (② 부정적 영향의 회피 및 대응) 산업안전과 건강, 노사협약에 따른 임금지급과 같이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
- (③ 지원활동)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활동

8) 양질의 일자리는 EU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제3국 노동조건 및 공급망의 작업여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5. 그린 택소노미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 ☑ (공통점) 기본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의 설정은 유사하며 실제 소셜 택소노미의 분류체계 기준은 그린 택소노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린 택소노미의 주요 기준을 준용하며 환경에 집중해 있던 분류체계를 사회적으로 “확장”했다고 설명

- ☑ (차이점 ①) 기본적으로 소셜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에 비해 정량 지표 개발의 한계성 존재

- ☑ (차이점 ②) 그린 택소노미에서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은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력을 줄이거나 되돌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데 반해, 소셜 택소노미는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규정

* 활동에서 파생되는 공익에 초점(ex: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마련 등)

- ☑ (차이점 ③) 그린 택소노미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속 수정해 나가는 반면, 소셜 택소노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음

* 소셜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에 비해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

그린 택소노미와 소셜 택소노미 구조

	그린 택소노미	소셜 택소노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해양자원(물)의 지속가능한 이용·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호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질의 일자리 ② 소비자 이익증진 ③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목표에 상당한 기여 ② 다른 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최소한의 안전장치 ④ 기술선별기준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목표 설정 ② 사회목표에 실질적 기여 ③ 다른 기준(규약)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④ 최소한의 안전장치

6. 소셜 텍소노미의 사회적 목표 활용 가능성

주체	용도
은행 등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대출, 신용, 보증)의 발굴 및 구성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지속가능 투자의 이해 및 공시
금융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목적성을 지닌 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텍소노미에 기반한 규제지원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및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흐름 측정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팩트 투자를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는 기회 식별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지속가능 투자의 공시 소셜투자 포트폴리오 공개 및 투자정책 설계
채권 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조달을 보다 더 쉽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활동의 식별
정책입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부족한 분야의 자금 간극 메우기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회적 프로젝트 개발 증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개발 시 참고자료 제공 및 금융 흐름의 측정과 추적 시스템 개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제정 및 상품 개발의 기준점 제공

출처: 임성택(2021)

7. 소셜 텍소노미의 사회적 목표 활용 가능성

☑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소셜 텍소노미에서는 방위산업을 담배, 도박 등과 같은 분야로 구분하여 비인도적 무기제조 및 유통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투자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

* 국내 한화기업이 분산탄 산업매각 작업을 완료해 노르웨이 블랙리스트에서 해제

** 유럽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협회는 텍소노미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어용 방위산업의 투자제한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 (회의적 시각 표명) “인권” 내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 ① 사회목표가 가진 모호성, ② 목표 측정을 위한 계량화의 어려움, ③ 회원국별 제도적 성숙도 차이로 인해 법제화까지는 많은 어려움 예상

☑ (이중부담 작용) 노동자 기본권 선언 등 국제규범 원칙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 텍소노미 입법화는 EU역내 기업들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4

사회적경제 향후 과제

1. 소셜 텍소노미의 의의

- ☑ (ESG의 패러다임 강화)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고 기술적 연계를 통해 개선성과를 창출할 여력이 컸던 환경 영역에서 사회영역에 대한 접근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적 추진 강조

- 기업들로 하여금 ESG경영의 공동노력 인식 강화 지원

- ☑ (인권 및 노동환경 중요성 제고) 소셜 텍소노미 권고안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공정한 사회로 전환”을 위해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 기업은 자신의 사업활동이 특정 집단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 책임 부여

*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근로자 및 공급체계까지 넓혀 근로자 인권보호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우리 정부도 안전관리, 공정한 노사관계, 근로자 역량강화 및 일터학습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 ☑ (사회적 가치 구체화) 선도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련 규범 상기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운영방식*에 관한 관심 도모 기여

* EU는 소셜 텍소노미 최종안에서 사회적 분류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 (사회적 가치 측정방식 관심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기준 달성을 요구함에 따라 사회적 요소를 강화한 측정 지표 필요성 제기

- ☑ (ESG위성 방지를 위한 기준보완) ESG성적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차단을 통해 실제 사회적으로 기여 가능한 사회 친화적 환경조성 기여

- ☑ (지속가능 투자 활성화 기여) 지속가능채권(ESG채권) 규모 확대* 등 소셜 텍소노미에서 제시한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영역으로 투자 및 금융 연계 용이

* 글로벌 ESG 채권은 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다자기구 발행을 위주로 성장 중이며(민경희, 2021)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 발행규모가 2018년 1684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금융위원회, 2021)

- 한국 정부도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검토* 및 인권, 안전, 의료, 주거 등 생활수준 향상과 관계된 사회적 이슈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형 소셜 텍소노미 마련을 통한 지원 계획 움직임

* 2022년 7월 현재 수요 조사 중으로 SRI(사회책임투자채권)를 통해 발행 검토 중

2. 사회적경제 영역의 과제

☑ 사회적경제 기업

- **(ESG경영활동 추진)** 많은 기업들이 ESG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또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 다양한 이해관계자 - 소비자 및 투자자 등 -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동
 - * ESG경영 이해를 기반으로 개별 이해관계자 노력이 더해짐으로써 기업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ESG를 긍정의 방향으로 실천하여 자기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경영공시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스스로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영활동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대응 노력과 함께,
-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사회적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정량화된 데이터로 축적에 대한 준비 필요

☑ 지원기관

- **(ESG정책동향 모니터링)**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ESG정책자료 검토 등을 통한 금융, 평가, 정보 공시 등에 관한 상황 모니터링 및 ESG전문 보도 채널 활용을 통한 정보 확인 중요
- **(사회적경제 ESG 인식제고 지원)** ESG 추진에 있어 사회적경제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기준 제시가 중요함에 따라,
- ESG기준 및 동향에 관한 이해를 위해 기본 정보가 정리된 안내서 개발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유의성 강화 지원 준비 필요
 - * “사회적”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홍보할 경우 사회적경제 전반에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소비자 불매운동의 확산도 이전에 비해 훨씬 커질 수 있는 리스크 존재
- ESG경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과의 소통 과정 마련과 함께 ESG 기본개념 이해 및 사회적경제와 ESG관계성에 대한 안내자료 발간*, 확산 필요

* 진흥원에서 10월 말 사회적경제 Sin ESG안내서 발간 및 확산 예정

5

소셜 택소노미 소개 및 사회적경제 향후 과제

참고문헌

- EU(2022). Social Taxonomy Final Report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2022.2.28. 발표)
- 기업지배구조원(2020). 스튜어디스 코드도입 이후 국내 책임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김미곤 외(2018).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건복지포럼(2020.12)
- 민경희(2021). ESG투자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연구보고서(2021-5호)
- 법무법인 지평(2021). 그린 소셜택소노미의 개념과 동향 이슈 리포트
- 사회적가치연구원(2022). ESG경영실무를 위한 ESG 핸드북 S in ESG
- 산업자원부 월간통상 2021. 5월호 & 8월호
- 임성택(2021). 대한상공회의소 ESG포럼 발표자료 “택소노미 개념과 동향”
- 이상현(2022). 지속가능금융의 의의와 통계현황. 한국은행 국민계정리뷰 22-1호
- 자본시장연구원(2021). ESG 평가체계 현황과 특성분석
- 최유경외(2022). 유럽연합의 ESG법제화 현황 및 쟁점: NFRD와 SFDR 도입과 EU 회원국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0(1)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2022). ESG, 사회(S)와 청렴윤리경영.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2).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No.1~7) 모음집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 친환경 · 포용 ·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2021.08.26.)
- 관계부처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v 1.0
- 금융위원회(2021). ESG경영 · 투자 확산에 연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21.12.8.)
- 중소벤처기업부(2021). 중소기업ESG촉진방안(2021.11.23.)

홈페이지

- 대한상공회의소 ESG 플랫폼 으쓱 <http://esg.korcham.net/>

• 이재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welfare@ikosea.or.kr 031-697-778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89